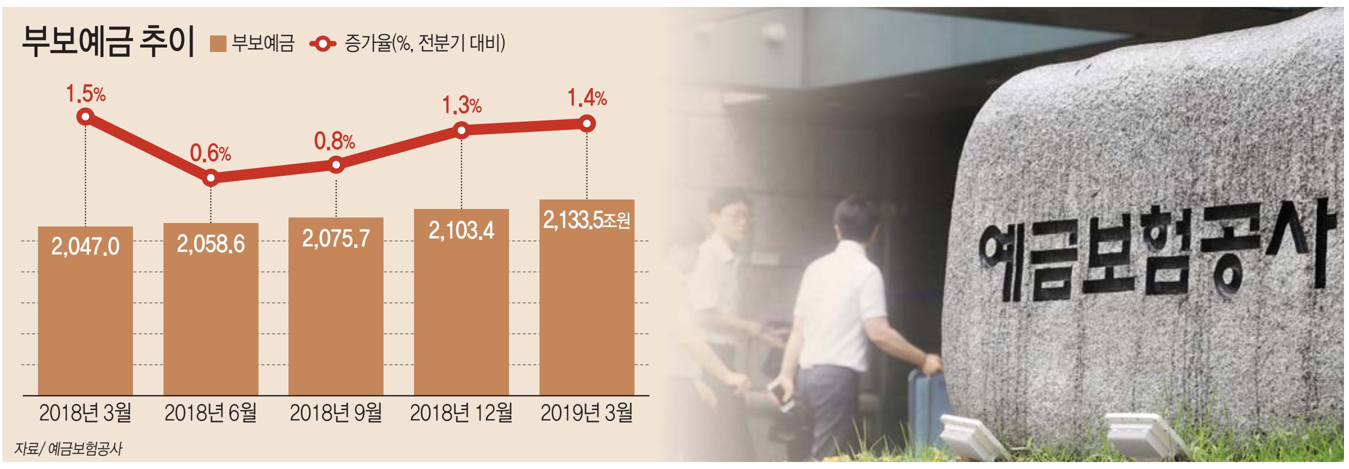
넓어지는 예보 사각지대… 저축銀만 1년새 1조 늘어 7조

예보법 개정안 들여보기

② 잠자는 예금자보호한도법

#. 김 모(63)씨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이용하기 어려워 집과 가까운 A, B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며칠 전 김모씨는 A은행 영업점이 하나로 통합 폐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다. A은행 예금을 B은행에 모두 합치면 예금보험 한도인 50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선 분리하는것이 맞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A은행을 찾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어서다.

〈2018.06 청원게시판 게시글〉



자료/예금보험공사

GDP 증가했지만 보험한도 그대로
불확실성 커져 안전자산 예금 몰려
경제성장 반영 보호한도 확대해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은행 등 안전자산에 고액 예금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한도를 늘려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금보험한도는 금융기관(은행·금융투자업·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도까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예금과 적금, 증권사 예치금, 보험계약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 가운데 1인당 5000만원 이내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는 2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조5000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늘어나는 예금 규모만큼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금융기관 예금중 예금 보호를 받는 비중은 2001년 33.2%에서 2017년에는 25.9%로 줄었다.

특히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3월 기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 예금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액의 43%에 수준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의 50% 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저축은행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면 고령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한도 경제여건에 맞춰 조정해야"

예금보험한도 금액은 1995년 2000만원에서 2001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01년에 비해 화폐가치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증가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아직 그대로다.

한국은행 화폐가치계산시스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2001년 1000원은 2018년 1508원으로 화폐가치가 1.5배 상승했다. 1인당 GDP도 2018년 3만3346원(한화 3669만원)으로 지난 2001년 1만1562달러(한화 1492만원)대비 2.5배 가량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금보험한도를 최소화하되 대략적인 기준으로 1인당 GDP의 2배 수준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예금보험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IMF가 제안한 수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수준은 7000만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 "예금보험한도 조정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신중한 입장이다. 예금보험한도를 늘리려면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한도로 예금보험료가 확대되면 대형금융기관보다 중소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이는 중소금융기관이 위치한 지방의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따라 금융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어 부실 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 예금보험한도까지만 예금되고 있다. 예금보험한도가 확대되면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이동해 고위험 고수익 자산운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한도가 올라가면 단순히 한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동이 대규모로 이동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위험을 분석,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한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한은 "수출 정점지나… 둔화 추세 접어들어"

'수출상황지수 개발' 보고서
수출 경기 흐름 신속·정확 판단

지난해 1분기부터 상품 수출이 전환점을 맞아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의 '수출의 기조적 흐름 판단을 위한 수출상황지수 개발' 보고서를 통해 수출 경기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수출상황지수(ET-COIN)'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변동성이 높은 수출지표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은의 경기상황(BOK-COIN) 시산 방법을 보완했다. 기조적 흐름을 보기 위해 변동주기가 1년 이상인 중장기 요인을 추출하고 단기·특이 요인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정책적 중요도가 낮은 만큼 제외했다.

정보변수로는 200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세계경제, 대외거래, 수출입 가격, 국내 산업활동, 환율·금융분야 등 총 123개 월별 지표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분기부터 수출이 확대 기조에서 둔화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이 반도체 수출이 정점을 찍은 후 전환점을 맞았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상황 지수는 전기 대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수치가 실제 상황보다 3개월 정도 선행돼서 나타난다"며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둔화 기조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에 산출된 지수는 월별 정보변수를 이용해 전기대비 증가율로 시산되기 때문에 예측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상품 수출을 3~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수출 경기 흐름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산은행, 광복 74주년 기념 정기예금 특판

815억 한도 연 1.74% 금리 제공

BNK부산은행이 8.15 광복 74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우선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연 1.74%의 금리를 제공하며,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총 815억원 한도로 진행한다.

특판 정기예금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특판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74명에게 영화 '봉오동 전투' 관람권을 1인당 2매씩 증정한다.

김용규 마케팅추진부장은 "고객들과 함께 광복 7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지역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유리 기자

NH농협은행 해외송금 고객 수수료 '5달러'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

NH농협은행은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을 이용해 해외송금하는 고객의 수수료를 송금액과 관계없이 5달러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은 처음 한 번만 은행을 방문해 송금정보를 등록하면 농협은행의 ATM과 올원뱅크, NH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365일 연중 4시부터 23시까지(토·일·공휴일 포함) 1일 최대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다. 송금인이 한국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면 해외의 수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수취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EB하나은행 '영하나러닝크루' 모집

도심 속 달리며 신체단련

KEB하나은행은 가을학기 시작에 맞춰 유스(Youth) 프로그램 '영하나 러닝크루 2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영하나 러닝크루는 '영 하나, 런 하나'를 주제로 진행되는 젊은 손님 참여형 스포츠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이 도심 속을 달리며 신체 단련과 함께 러닝 마케터로서 KEB하나은행의 건강한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국민은행 "이제 베트남 동(VND)으로 직접 송금"

'KB 베트남 동 바로송금 서비스'

KB국민은행은 12일 베트남 동(VND)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KB 베트남 동 바로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베트남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은 미국 달러화(USD)로만 가능했다. 현지에서 수취인이 베트남 동으로 지급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중환율이 적용돼 불리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앞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단일 환율이 적용돼 해외송금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지 송금 중계 전문은행인 비엣콤뱅크(Vietcombank)와 직접 제휴해 중계·지급수수료를 포함한 현지 수수료를 약 4000원 수준으로 낮췄다.

/안상미 기자